

“소상공인 대출 7% 이상 고금리→4.5%로 낮아주세요”

5000억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기부, 오늘부터 신청·접수받아
소상공인 최대 1.5만명에 혜택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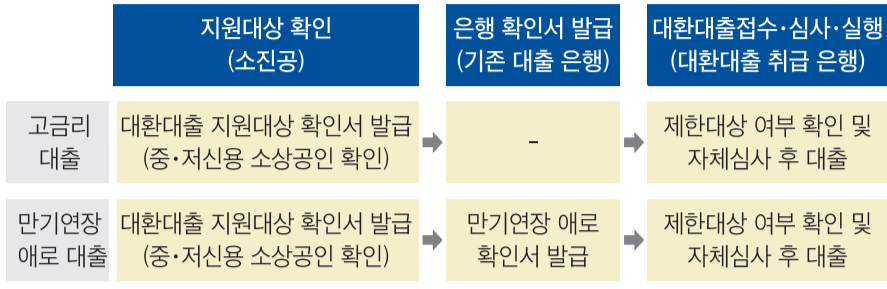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7% 이상 고금리를 4.5%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현재 105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3.5% (2019년 12월)에서 5.31% (2023년 12월)로 급등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환대출 프로세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을 1만~1만5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줄일 수 있는 이자 규모도 2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도 이번에 정

책자금으로 옮겨탈 수 있다.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은행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등 15곳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두 가지 지원 유형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외에도 최근 신용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영업을 감소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만기 거절이 되는 사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번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2022년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규모가 3000만원이었다면 이번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합계가 5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 대상은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한 8월31일 이전 시행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대상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수요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韓 중소기업 중동 진출지원 앞장

중기중앙회와 수출상담회 개최
27일 사우디, 29일 두바이 진행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 후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와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 수출상담회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27일)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29일)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중소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

다. 특히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시 양국 정상들의 임석하에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 지역 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대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판매계약을 협상 중이다.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도 UAE 유통사와 MOU 체결을 준비하며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협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네이버의 클로바 OCR(광학 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들을 향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동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관의 지원 역할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지난 23일 서울 마포 아만티 호텔에서 열린 ‘이어드림 스쿨 제3기 교육생 졸업 네트워킹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이어드림 스쿨 3기 144명 수료

졸업생 8명 중기부장관상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분야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만티 호텔에서 ‘이어드림 스쿨 제3기 교육생 졸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 스쿨’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난을 겪고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청년 개발자를 교육·양성해 취업과 창

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어드림 스쿨 3기는 지난해 3월에 입교해 12월까지 이론과 실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졸업생 중에선 13명이 중기부 장관상(5명)과 중진공 이사장상(8명)을 받았다.

3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144명 중 31명은 과정 진행 중 취업 희망 벤처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교육생 7명으로 이뤄진 총 3개 팀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강력 촉구

중소레미콘업계, 결의대회 개최

중소레미콘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

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기업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500여 개 중소레미콘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우유팩 재활용 인쇄용지 ‘Hi-Q 밀키매트’ 선보여

한솔제지가 어린이집에서 수거한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한 고급 인쇄용지 ‘Hi-Q 밀키매트’를 출시했다.

25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신제품 ‘Hi-Q 밀키매트’는 뛰어난 백감도와 인쇄광택 등을 통해 최적의 인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업용 홍보물 및 인쇄물에 적합한 제품이다.

한솔제지는 해당 제품 출시와 함께 오는 4월에 예정된 총선용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Hi-Q 밀키매트는 어린이집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수익공유형 민간기술거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진행할 민간기술거래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이들 기관을 뽑았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

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 지원, 스마트테크브릿지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기보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보는 선정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오는 29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기보의 기술거래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공동중개 사업 세부수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